

# 소규모 가구 증가로 인한 Meal Kits의 인기

-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·1인 가구의 확대는 시장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.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,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와 함께 밀키트 (Meal Kits)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
- 밀키트란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손질된 상 태로 레시피와 함께 배송하는 서비스로, 신선하고 건강 한 재료를 사용해 외식보다 '건강한 식사'라는 이미지가 강하다.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재 료 구입을 위한 쇼핑 및 재료 손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는 장점 때문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특히 인 기를 끌고 있다.

# 미국 내 Meal Kits 시장의 확대

- 밀키트는 2012년 '블루 에이프런'을 필두로 호응을 얻기 시작해 2017년에는 약 2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다.
- 2017년 밀키트 시장점유율(2018년 2월 기준)을 보면, 선 발주자였던 블루 에이프런은 2016년 57.5%에서 약 17%

감소한 40.3%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, 헬로 프레시가 28.4%로 약 10%나 상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, 홈 쉐프, 선 바스킷, 플래이티드 등의 업체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.

#### 2017년 미국 밀키트 시장점유율

(전년대비 증감율)







**40.3%** (▼17%)

**28.4%** (**1**0%)

**10.5%** (▲ 2%)

SUN BASKET

Plated.

**7.9%** (▲4%)

**5.7%** (▲ 1%)

\* 출처 : Second Measur

- 닐슨(Nielson)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약 9% 정도 가 밀키트 서비스를 경험했고 70% 이상이 밀키트를 인 지하고 있었으며, 직접 마트에서 밀키트를 구매하는 소비 자도 26.5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렇듯 밀키트 시장은 소규모 가정 및 젊은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2021년까지 연평균 40%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규모 역시 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

4월 2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17개 지점에서 블루 에이프런의 제품을 정가보다 30% 정도 저렴하게 시범 판매 중



2018년 5월 밀키트 브랜드 홈쉐프(Home Chef) 인수



2017년 9월 밀키트 브랜드 플레이티드(Plated) 인수



네덜란드 식품소매기업인 아홀드 델헤이즈(Ahold Delhaize)와 파트너십을 맺고 산하 브랜드인 스탑앤샵(Stop&Shop)과 자이언트 푸드(Giant Food) 600여 매장에 판매 개시 예정

# 밀키트 시장 진출에 속도 올리는 대형유통업체들

- 이에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밀키트업체를 인수하고 마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. 기존에는 고객이 정기구매하여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이었으나, 이제는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확장 · 보급되며 직접 마트에서 밀키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.
- 밀키트 시장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시장 인지도가 높은 밀키트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유통라인을 적극 활용해 판로를 더욱 확장해가고 있다.

#### 밀키트 시장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



2017년 7월부터 allrecipes와 파트너십을 맺고 밀키트 시장 진출



2018년 3월부터 250개 지역, 2000개 상점에 자사의 밀키트 제공

# 밀키트 시장진출을 위한 효과적 유통방법이 필요

- 한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조리식품 배달문화가 발달해 있고 도시락 및 간편식들이 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면, 미국은 시장의 규모가 커 새로운 트렌드 형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. 하지만 진입에 성공만 한다면 검증된 제품들은 거대한 시장으로 전파되고 안정감 있게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다.
- 따라서 미국의 밀키트 업체와의 제휴 및 레시피·식재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간편식과 반조리 식품의 미국 진출을 모색한다면,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.

출처 : Food Dive, www.fooddive.com (2018. 6. 4.) Wall Street Journal, www.wsj.com (2018. 6. 3) www.blueapron.com